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11/6

거주 지역 치안 상태와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가 2012년 12월 말 전국 기준 약 46만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교통정보수집 목적으로 설치한 것만 집계한 것으로, 민간시설에 설치된 CCTV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점점 늘어나는 CCTV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까지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돼 감시 대상이 되는 점과 개인 사생활 노출 우려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 3구에 CCTV 설치가 집중되는 등 지역 간 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우리 국민들은 현재 거주 지역의 치안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CCTV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지 알아봤습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3년 10월 21~24일(4일간)
2.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3.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214명
5. 표본오차: $\pm 2.8\%$ 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16%(총 통화 7,713명 중 1,214명 응답 완료)
7.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거주 지역 치안 상태, '좋다' 64% > '좋지 않다' 24%
- 동네 주변 밤길 걷기 두려운 곳, '있다' 42% vs. '없다' 56%
- 특히 20대 여성 열 명 중 일곱 명, '밤길 걷기 두려운 곳 있다'
- 범죄 예방용 CCTV, '더 늘려야 한다' 77% > '더 늘릴 필요 없다' 18%

거주 지역의 치안 상태, '좋다' 64% > '좋지 않다' 24%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4명에게 현재 거주 지역의 치안 상태에 대해 묻은 결과 64%가 '좋다', 24%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고 12%는 응답을 유보했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 큰 차이 없이 우리 국민 열 명 중 예닐곱 명은 살고 있는 지역의 치안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거주 지역의 치안 상태 (단위: %)

구분		표본수(명)	좋다	좋지 않다	모름/응답거절
전체		1,214	64	24	12
지역별	서울	250	68	18	14
	인천/경기	349	64	24	13
	강원	37	-	-	-
	대전/세종/충청	123	59	25	16
	광주/전라	124	65	31	4
	대구/경북	125	59	30	11
	부산/울산/경남	192	70	21	9
	제주	13	-	-	-
성별	남성	601	66	24	11
	여성	613	63	24	13
연령별	19~29세	218	62	30	9
	30대	242	64	25	11
	40대	262	64	25	11
	50대	238	64	25	12
	60세 이상	254	68	15	17

질문) 귀하께서 살고 계신 지역의 치안 상태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50 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동네 주변 밤길 걷기 두려운 곳, '있다' 42% vs. '없다' 56%

- 특히 20대 여성 열 명 중 일곱 명, '밤길 걷기 두려운 곳 있다'

전반적인 치안 상태에 대해서는 좋다고 평가한 사람이 많았으나, 성인의 42%가 '동네 주변에 혼자 밤길 걷기 두려운 곳이 있다'고 답해 여전히 치안 사각 지대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밤길 걷기 두려운 곳이 없다'는 56%, 2%는 의견을 유보했다.

밤길 걷기 두려운 곳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37%)보다 여성(47%)에서 더 많았으며, 특히 20대 여성에서는 68%에 달해 젊은 여성들의 밤길 두려움이 컸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48%), 대구/경북(46%)에서 밤길 두려운 곳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서울(37%), 부산/울산/경남(35%)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거주 지역의 치안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783명)의 71%가 동네 주변 혼자 밤길 걷기 두려운 곳이 없다고 답한 반면, 치안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289명)의 81%는 두려운 곳이 있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 동네 주변 혼자 밤길 걷기 두려운 곳 여부 (단위: %)

구분		표본수(명)	밤길 두려운 곳 있다	두려운 곳 없다	모름/응답거절
전체		1,214	42	56	2
지역별	서울	250	37	62	1
	인천/경기	349	<u>48</u>	50	2
	강원	37	-	-	-
	대전/세종/충청	123	40	57	3
	광주/전라	124	42	55	3
	대구/경북	125	<u>46</u>	51	4
	부산/울산/경남	192	35	63	2
	제주	13	-	-	-
성별	남성	601	37	61	1
	여성	613	<u>47</u>	50	3
연령별	19~29세	218	57	42	1
	30대	242	39	61	0
	40대	262	47	52	1
	50대	238	39	59	2
	60세 이상	254	30	62	8
성/연령별	남성 19~29세	114	46	52	2
	30대	124	32	68	0
	40대	134	41	58	1
	50대	119	41	58	1
	60세 이상	110	26	72	2
	여성 19~29세	104	<u>68</u>	32	0
	30대	118	45	55	0
	40대	128	53	46	1
	50대	119	38	60	2
	60세 이상	143	34	54	12
거주 지역 치안 상태	좋다	783	27	<u>71</u>	2
	좋지 않다	289	<u>81</u>	18	1

질문) 귀하께서 살고 계신 동네 주변에는 혼자 밤길 걷기가 두려운 곳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50 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범죄 예방용 CCTV, '더 늘려야 한다' 77% > '더 늘릴 필요 없다' 18%

앞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를 더 늘려야 하는지 묻은 결과 77%가 '더 늘려야 한다', 18%는 '더 늘릴 필요 없다'고 응답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 성, 연령별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CCTV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특히 남성의 75%, 거주 지역의 치안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783명)의 73%도 CCTV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현재 거주 지역의 전반적 치안 상태에 대해서는 성인의 64%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42%는 동네 주변에 혼자 밤길 걷기 두려운 곳이 있다고 답해 치안 사각지대가 적지 않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77%)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용 CCTV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 범죄 예방용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표본수(명)	더 늘려야 한다	더 늘릴 필요 없다	모름/응답거절
전체		1,214	77	18	5
지역별	서울	250	78	17	4
	인천/경기	349	76	19	5
	강원	37	-	-	-
	대전/세종/충청	123	77	20	3
	광주/전라	124	70	23	7
	대구/경북	125	82	13	6
	부산/울산/경남	192	81	17	3
	제주	13	-	-	-
성별	남성	601	75	20	5
	여성	613	79	17	4
연령별	19~29세	218	83	15	2
	30대	242	80	15	5
	40대	262	73	23	3
	50대	238	75	20	5
	60세 이상	254	76	17	7
거주 지역 치안 상태	좋다	783	73	21	5
	좋지 않다	289	87	10	2
동네 주변 밤길 걷기	두려운 곳 있다	511	83	14	4
	두려운 곳 없다	675	74	21	5

질문) 최근 범죄 예방용 CCTV 설치가 늘었는데요. 한편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CCTV 설치를 앞으로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50 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